

이번엔 괜찮았어?

후후^ ^

당연히 잘하겠지

원비

잘리다. 힘들게 참견한
편찬의 꿈은
아닌런지 한두

소식지 발행 - 7월 1일부터
창간 준비호로 시작하여, 학생들의
이야기, 학복회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소식지는 매월 10일 발행!

세미나 - 교육사회학 '학교 교육과 사회의 관련성'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게 됩니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제보받기 - 통신 공간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보를 받고,
제보를 사례와 하여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커피팅과 킴모-정팅(정기채팅)은 매주 토요일 10시(학복회 대화방)에
열리며, 항상 개방되어 있습니다. 정모(정기오프모임)은 한 달에 한번
있습니다.

벤티 -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벤티를 강원도 영월로 다녀왔습니다.

통신을 안 하시는 분들도 학복회 회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학복회에 대해 알고 싶으시던가 가입을 원하시는 분이나, 소식지에
글을 쓰고 싶으신 분은 나누누리 학복회 시삼 나정훈(김합시대)로
연락 주십시오.

- 019 371 8266

이 땅의 교육 문제와 청소년 인권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쓰는데 좀

힘들었지만, (편찬부원)

주어진 시간이었어!! 글도 썼어...

다음엔 더 열심히... 그리고 미안해!!

- 거두

다니 놀았는데
힘이 드네...;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할게!

사안... 스스!

-수체타-

공돌음이

나온다구?

낙서금지 긴장되는군...



편집장 인사말!!

안녕하세요!
 "돋음"의 편집장 올비라고 합니다.
 준비호로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지난호의 미진함을 보충하여
 8월의 소식지 창간호가 나오게 된 것에
 전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네요 ㅠ.ㅠ
 준비호로 끝나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기쁘요~! 다들 수고 많았어염.^^
 준비호에 대해 비판해 주셨던 친구들에게 고맙고 그 비판을 받아들여 이번
 소식지에서는 알찬 모습을 보여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이월호 기획!!

이 코너는 책 서문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문제가 있으면 그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의 불만이 있겠죠?

우리의 목소리를 담았어요
 만평 "우리 기체가 아니라고요!"
 불만의 내용을 그림으로.

불만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모습
 을 제시해주어야겠죠?
 우리가 바라는 교육이란 이런 거야
 소식지의 핵심 부분이겠네요.

어른들이 예상하는 미래의 교육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될까?
 후후 글썸?

강력 추천!!

학생들의 과외가 그렇게 대단해?
 풍문여고를 취재 했다고?

학복회?!? 니들이 모여서 모함전데?
 학복회의 힘찬 미래~!
 우리 교육의 밝은 미래!
 학복회에 천개의 불이 켜지면?

일차졌죠? 아닌가여? ㅠ.ㅠ
 싫으셔도 어쩔 수 없어요~!
 때월 10일 "돋음"은 당신의 결을
 찾아 갈 테니까~!
 무섭죠?
 기대해 주세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얘기함 해봐!! 학교가 뭔지....

물론 학교는 효율적입니다.
 교육은 국가적 사업입니다. 한 나라에서 활용가능한 교육 인력과 교육 시설을 최대한 효율적
 으로 활용할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학교가 없었다면 학생들은 자기가 배우고 싶은
 것이 있더라도 가르칠 사람과 배울 장소를 찾지 못해 배움을 포기했어야 할 겁니다.
 오늘날 학교는 기적과도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해 가장 현명하게 선택된 교과과정과 교수 방법, 국가에 의해 엄격히 관리, 측정되
 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평가... 학교제도가 아닌 사설 학원이나 그 외 어떤 곳에서 이처럼 많
 은 정보를 학생들에게 대량으로 제공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의 교육비는 다른 어떤 기관보다 저렴합니다. 이걸 부정할 수 없겠죠.



학교가 없거나 훌륭한 곳인데... 교지식 교사.

지금까지 어른들은
 학교를 신성하고 완전무결한 사회
 기관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앞으로 학교를 보는 여러
 시각을 주제로 지상 토론을
 합칩니다.
 여러분도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오늘은 그 첫 주제인 학교는 과연
 효율적인가? 입니다.

학교는 과연 효율적인 교육기관인가?

학교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학생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배우기는 힘듭니다. 예를 들자면 사진을 배우고 싶은 학생은 사진에 대한 전문 강사의 체계적
 인 교육이 필요한데 학교는 그것을 해줄 수가 없으며, 그것을 배울 시간을 내는 것조차 허락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는 학생들에게 획일화된 생각을 주입함으로써 학생 개인의 창의성과 개성을 무시하
 므로써 연구, 개발의 근본적인 힘을 기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교육비 문제도 다른 사설 기관에 비해 저렴하지만 교육의 내용이나 교육 내용의 질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나 이거
불만이야
년
안그래?**

고치려면 제대로 고쳐!!

수능 위주에서 수행 평가로?

-글쓴이 자투

2002년을 전후로 달라지는 입시제도에 많은 학생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한 학교 교육을 생각해 보자.

수능 위주의 수업은 주로 보충수업에서 이루어진다. 정규수업 시간에는 내신을 위한 진도 나가기만으로도 벅차다.

-(중간, 기말고사에 목숨걸 교사들)

이러한 이유로 학교는 보충수업을 만들어서 반 강제로 학생을 남게 하여 수학능력 시험을 대비해 무언가(?)를 한다. 과목별로 살펴보면,

국어-전년도 언어영역 시험지, 혹은 비싸게 돈주고 문제집 사서 각자 풀으라고 내버려둔다. 수능이 끝날 때마다 기출자는 항상 "이번 언어영역 시험도 국어 교과서에서 많은 부분이 출제되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렇게 국어교과서를 외치면서 왜 학교는 문제집 강매를 할까

영어-독해 능력 향상을 위해 사는 영어만 가득한 영어 참고서. 교사들이 정한 참고서들은 하나같이 영어만 잔뜩 있다. 수

업 내용도 부실하다. 그저 암기식으로 중요 숙어를 표시하고 내용을 한번 해석하고 수업은 끝난다. 영어가 많다고 저절로 해석이 되나?

수학-쓸때없이 어려운 문제. 무조건 어렵고 복잡해야 수학능력이 향상되나?

학생들의 수학실력은 생각하지 않는다.

과학-각종 문제집에서 추린 짜맞추기식 프린트. 이론말고 실험은 언제 해 볼까?

학생에게 할애된 실험시간은 한 두시간 밖에 없다. 이렇게 무더기로 하는 수능대비 수업은 백날 해도 오십보 백보 일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학교에서 고득점자가 나오길 바란다.

교사가 가르치는 수능 위주의 수업은 낡은 의식 속에서 창출된 암기식 수업.

생각하는 힘을 기른다는 것은 눈을 씻고도 찾아 볼 수 없고 그저 지난해 기출 방식을 따지며 자신의 예감이 적중하길 바라는 생각뿐이다.

한 두해 지나갈수록 기출자의 머리도 용량이 안되는지 비슷한 유형이 굳어지면서 또 다시 암기식 시험으로 전략해 가고 있다.

결국 참다 못한 교육부에서는 야심작으로 '수행평가' 를 내놓았다.

'수행평가'를 내놓았다. 많은 기대와 우려 속에 지금의 고1부터 실행하고 있으나 언제나 그렇듯 문제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

먼저 학생들의 모든 것이 평가된다.

학교에 등교하여 수업을 마치고 하교할 때까지 학생들은 긴장해야 한다. 혹시 복장이 흐트러지지 않았나? 수업시간에 떠들지 않았나?

평가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없어서 자칫 교사의 주관적 판단으로 평가 될 수도 있다.

수행평가 해당 학년은 수업이 일찍 끝난다. 학교생활만 열심히 하면 그냥 저절로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이러다 대학 못 가면 어찌나' 라는 불안감 속에 예체능 학원과 컴퓨터 자격증 따러 다니기에 바쁘다. 이것을 염려하여 학교 나름대로 교육시설을 확충하지만 너무나

열악해서 전교생을 다 수용하기는 힘들다. 결국 늘어나는 과외활동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한다.

수행평가는 결과 보단 그 과정을 중시한다는 이름 아래에 포트폴리오(실기 과정자료)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

이 자료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학교는 실기 과정자료와 중간, 기말고사 성적 또한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이중부담을 주고 있다.

혼란스런 평가로 학교나 학생 모두 힘들어하고 있다.

애당초 취지는 좋았지만 아직은 우리 현실에서 실시하기엔 동떨어진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학생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고 교육부에서 마음대로 정해버린다.

그리고 학교나 학생에게 실행하라고 명령한다.

언제쯤 안정된 정책이 나올까?



이 책 어때?

- 학부회에서 이 책을 갖고 토론했지용.

(이한 지음/민들레 출판) 학교를 넘어서 ②

학교폭력의 주범은

비인간적 학교 제도 그 자체이다!!

지난 호에 실린 글을 읽은 많은 친구들, 어른들이 학교를 일반적으로, 감정적으로 비난한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다소, 과장한 면이 없지 않지만 아직도 학교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신성한 학교'로만 여기는 교사 및 어른들에게는 일침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그것이다.

지난 호에 우리는 흔히 이야기 되는 교육 문제의 진짜 범인은 '학교'라는 것을 지적했다. 어른들이 흔히 오해하듯이 학교는 '효율적'인 교육 기관도 아니고, '건전한' 시민을 길러내는 장소도 아니다. 온갖 형태의 비효율과 인권 침해의 현장. 그에 다름 아니다.

학교 폭력 문제도 따지고 보면 학교가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몇몇 보수적인 어른들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폭력 예방 캠페인은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실패할 것으로 보인다.

교사와 학생간의 폭력은 '교사=관리자, 학생=관리 대상'이라는 인식과 그러한 인식을 뒷받침하는 학교 제도가 변하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인간은 언제나 부자유의 상태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능동적 존재인 반면에, 학교 제도가 원하는 인간상은 정해진 교과과정과 정해진 규칙만을 엄수하는 수동적인 기계인간이기 때문이다. 학생과 교사/학교 사이의 갈등은 학생을 복종기계로 만들고자 하는 학교의 의

도와 자유롭고자 하는 학생들의 정열의 충돌의 결과이다. 그리고 보통 학교와 교사들은 '무력'으로 학생들의 정열을 진압하고자 한다. 그것이 학생과 교사 사이의 폭력의 원인이다.

그리고, 이러한 폭력은 학생끼리 일어나는 폭력의 원인이 된다.

학교는 학생들의 시간과 생활 공간을 철저히 통제하려고 한다. 뻑뻑한 쉬는 시간. 그마저도 쉬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시간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든. 10시까지도 되곤 하는 자율 학습, 보충수업. 방과후에도 학교는 숙제와 성적으로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다. 특히, 수행평가라는 것을 한 이후에 내주는 엄청난 분량의 보고서들은 학생들의 시간을 철저히 빼앗는다. 그리고, 내 친구, 옆반, 옆 학교 아이가 모두 경쟁자라고 하는 교장과 담임 교사의 저주는 우리를 사설 입시 학원으로 향하게 만든다.

상황이 이런데, 따뜻한 인간관계가 가능하겠는가? 아이들은 한 장소에 웅기종기 모여 있을 뿐 인간적인 대화와 공동체를 형성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 그 대신 비열한 생존 경쟁의 본능만이 남아있다. 그러니, 어쩌면 폭력이 발생하는 건 당연하다.

그래도 '학교는 친구를 만들어 준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자.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는 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동네 놀이터에서 처음 보는 아이들과도 금방 친구가 되었다.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지 못하는지 혹시 왕따는 아닌지 고민할 필요도 없이 말이다. 결국 학교는 동네 아이들 모두를 사귄 수 있을 정도로 훨씬 폭넓고 따뜻한



학교폭력의 진정한 원인은

학교 그 자체이다.

- 김수용님의 만화 힙합에서 따온 체벌 장면

인간관계를 나눌 시간과 공간 모두를 빼앗아 가고선 고작 한두명 친구를 만들어 준다고 생색을 내는 것이다.

요즘 왕따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사실 학교가 왕따를 조장하고 이용한다. 학생 모두가 '똑같은 목표', '똑같은 생활방식'을 가진 인간이 되길 바라는 학교이기 때문이다.

잘 생각해보자. 한명의 잘못을 가지고 반 전체에게 단체기합을 주거나, '네가 반평균을 깬다 먹었어!'라는 식의 말들, 은연중에 특정한 학생의 사생활을 공개하는 비열한 짓거리. 이것 모두가 왕따를 조장하는 일들이다. 교사들의 이런 행동들은 공동체의식을 키우긴커녕 전체를 위해(?) 개인을 철저히 짓밟는 일이다. 이런 일에 교사와 학교가 솔선수범하니 학생들 사이에서 특이한 아이들이 왕따가 되는 건 당연하다.

학교는 학생들을 오직 한가지 잣대를 가지

고 본다. 바로 성적이다. 성적을 통해 학생들은 등수가 매겨지고 마치 상품의 질처럼 값어치가 매겨진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극 소수에게만 행복을 준다. 성적이라는 기준에서 소외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 중 일부가 소외감에서, 또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 이것은 학교가 성적으로 학생들을 계층화 시킨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일진'이라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비합리적인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그러한 폭력의 근원지가 학교 제도라는 것을 지적한다!

학교가 학생들을 복종기계로 만들기 위해, 따뜻한 인간관계를 가로막고, 학생들의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 왕따를 조장하고 이용하며, 성적이라는 기준으로 획일적이고 폭력적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학교 폭력의 주범은 바로 학교이다!!

풍문여고 학생회와 인터뷰

7월 19일 풍문여고 학생회 임원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학생복지회:학...../
풍문여고 학생회:풍....)

학: 학생회가 활발하다고 들었는데여?

풍: 그럼요 (하하하)

저희는 학생복지나..권리등을 먼저 찾은 것보다 학교라는 단체 안에서 교육적인 의미를 따지는 것도 있으니까 민주 의식을 기르는 것을 첫째 목표로 삼고 있죠.

여가활동이라고 해야하나요? 정기적으로 1달에 한번 영화도 상영하고 학예부에서 학생들 학업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여러가지 행사도 하고..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 마다 총학생회를 소집하여 학생들의 의견에 따라 학교의 운영이 달라지게끔, 학교에 저희의 발언권을 감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죠

학: 학교에서 많은 간섭을 받지 않나요?

풍: 한...1년에 17362000원 정도가 저희 일년 예산이거든요. 등록금에서 1인당 7000원씩 모아져요. 850만 정도 학교회비 만드는데 쓰고 나머지는 누구의 허락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의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8개의 부가 개별화된 기능을 하죠) 봉사부에서는 '화진이'(화장실에서 나누는 진실한 이야기)같은걸하거든요. 화장실 낙서판 담당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죠 학생회 대한 인식이 어떤가를 알수 있어요.'건의함'도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고 '사랑의 편지'라고 저희가 편지를 배달해주거든요. 학생들간의 관계가 친밀해 지도록..

하루에 한 100통정도가 배달되요. 10년 가까이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어요.축제나 행사같은 것이 있을때.. 선생님들도 참여를 하시지만, 일단 저희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서 한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껴요.

풍문여고 학생회와 인터뷰

학: 학생회 역사에 대해 아세요? 언제부터 영향력이 있는 학생회가 되었는지?

풍: 저희가 지금 아주 영향력 있는건 아니예요. 88~89년 직선제학생회가 시작될때, 그때 굉장했다고 들었어요.

학: 학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풍: 어려운점..나쁜부분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도 있고.. 인권문제에 관해서는 초창기때 많이 탄압받았거든요. 그리고 극복과정이 있었고 전 학생들이 연합을 해서 시위같은것도 하고 그래서 인식이 안좋은 선생님들도 계세요. "너희 무서워서 뭐 하겠냐"는 식으로요. 하지만 저희학교는 학생들의 권리가 많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보충수업같은 것에 저희가 영향을 미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타협하고 극복해 나갈꺼예요.

학: 학교와 어떤 방법으로 타협을 하죠?

풍: 먼저 담임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한단계 한단계 올라가서 교장과 최종타협을 봐요

학: 그런일 때문에 학생회장이 징계를 먹거나 하지는 않나요?

풍: 저희는 선배님들이 잘 쌓아오셔서 그런지 그런 일은 없어요. 부당한 일로 선생님께 당했을 경우 신고만 하면 당장에라도 공권력이 투입될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런걸 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 예전에는..예를 들어 단발령이 내리면 학생회 측에서 주도를 해서 다 같이 같은 시간에 종이비행기를 날린다던가, 아침이슬을 같이 부른다던가, 그런식으로 폭력적이지 않은 시위를 했고,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사과를 요구하고 또 받아낸적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인정해 주세요. 저희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많이 지원해주시거든요. "대립"이 아니라 "같이"하는거죠.

학: 체벌이 있나요?

풍: 체벌과 벌점을 병행하죠. 사회입장은 뭘든 하나만 하라는 거죠. 두가지 다하는 것은 너무 선생님들의 편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거죠. 일단 생활지도부장선생님께서 지금정비중에 계시니까 잠시 기다려 보는거죠. 체벌만 합시다 하면 너희가 짐승이냐는 식으로 달래듯이 하다가, 그럼 벌점제만 합시다 하면 그럼 선생님들은 어떡하냐고 안태리면 말을 들을 것같냐는 식으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거죠. 우리는 교육적인 효과를 위한 것뿐이다 하면서 벌점과 체벌을 "강제" 병행하고 있죠. 지각이면 벌점 4점, 담배1번 피면 10점인데.. 지각 3번이 담배편 것보다 나쁘다 는건 말이 안되죠. 학생이나 학교 어느쪽도 피해보지 않도록 합의해야 합니다. 피해를 당하고 건 소위 문제아라고 찍힌 학생들 뿐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애들도 관심을 갖지 않게되죠.

그런 점에 대해서 빨리 인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학: 학생회에서 해야 할 일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풍: 저희는 봉사단체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의 의견을 수립하여 반영하는 일등의 학생들을 위한 일을 합니다. 저희들의 가장 큰 백그라운드는 학생들이예요. 모두의 학생회가 되어야 하는데 우월의식같은게 생길까 걱정이예요.

학: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 같은 거 있으세요?

풍: 스스로 잘하면서 각자 인권도 찾고 같이 해나갔으면...

저희는 공부 못하지만 학생회라는 저희 스스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다른 학생회여러분들도 모두의 대표라는걸 명심하고 학생들에게 다가가도록 노력해주시고 모두가 꿈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도록 부지런히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학복회의 길

바로 '학생'들, 우리를 스스로'이다.

학복회는 그 동안 많은 시간이 있어왔다 하지만 그렇다할 발전을 해오지는 못해왔다 좀더 견고해져야한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이제 더 이상 불만을 토로하는 친목모임이 아니라,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며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더 이상 끈물처럼 시간이 없다.

그리고 이제 만들어가자!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청소년 인권의 보장과 이 땅의 바른 교육제도 실현을 위한 모임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를 정의 할 수 없다.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가 있다면, 바로 '주체성'이라는 것이다. 문제점을 느끼는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해나가야 하는 것! 은 아주아주 중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에, 여태 학복회는 그다지 많은 활동이 없어도, 항상 주목을 받아 온 것이고 그것이 있기에, 수많은 청소년단체들과 다른 것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개혁'을 위한 '학생스스로 나선' 모임이다!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

전국 중고등학교 내 '학복회 씨클 수 천 개'
전국 중고등학교 내 '학복회 학생회 수 천 개'

이런 활동이 필요할까?

라고 의문을 갖는다면, 난 당연! 이라고 말하겠다. 학복회가 어떤 이상을 현실로 나타내고 활동을 할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연론도 학교도 믿을 것이 못된다. 그리고 그런 식의 운동은 좋지 못하다.

연론사에 쫓리르 달려가서 '제가 이랬대요' 이렇게 말하고, 학교에 가서 '교장선생님 나 학교 싫어요'~ 이러한 것만은 의미가 없다. 연론과 체력은 이용할 가치는 있지만, 그것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 전에 학복회가 주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연론과 학교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힘! 그런 바로 학생들! 학생들과의 연결망! 그것이 필요하다.

지금 학생들과 만날 시간이고, 연결해나가야 한다. 개방된 세미나, 토론회를 열고, 소식지를 만들어 학생들과 만나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힘으로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다.

학생의 인권 보장과 이상 교육의 현실화!

그럼 지금 당장은 뭘 해야하는가?

지금은 크게 두가지를 해야만 한다.

1.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우리의 생각을 전하고 설득시키는 것.
2. 조직의 체계화로 앞으로의 활동에 준비를 하는 것.

이 것이 지금 당장의 문제이다.

우리의 이상은 멋지다. 꿈은 아름답다. 열심히 해보자! 보이는 길로 한발한발 열심히 내딛자. 그럴 시간이다! 지금은!

는 우리의 주장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이 때, 당신의 친구들이며,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인간'은 꽃보다 아름답다고 하지 않는가?

그럼 그 가치 실현을 위해 아주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지 알겠는가? 자. 맞추어봐라.

바로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인간은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간다.

목공으로서의 꿈이 있다면, 목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받는 것이 교육의 힘을 통해 이루어진다. 꿈을 이루는 인간은 행복하다.

그래서 교육이란, 바로 당신! 당신의 친구!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이 것이 교육의 여러 기능 중 가장 중요시되어야 하는 기능일 것이다.

세상을 이루고 있는 당신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교육은 어떠한가?

입시제도로 열심히 학생들간의 경쟁만을 유도해온 우리나라 잘난 정책은 청소년들을 오로지 '학생'으로만 만들어 버리고,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교육에 따르지 않으면 낙오하게 만들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드는!!! 자신이 원

하는 교육은 커녕, 왜 배우는 지도 모르는 것들을(누가 정했는지도 모르는) 일방적 주입(!!!!)을 당하고 있다.

개인의 행복은 고려되지도 않는 XX 같은 교육 정책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런 교육 속에는 별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행복을 만드는 교육'이 되려면 아마도 이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교육'

내가 원하는 꿈을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한 기술, 이론 공부를 자유롭게 한다. 이 것이면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지 않겠는가?

이것을 생각할 때 교육을 '학교'라는 공간에 한정지어서 생각하지 말자.

학교는 하나의 교육 방식일 뿐이다! 학교 밖으로 교육을 끌어내는 것도, 좋은 교육 방식일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학교 안에서 '학습자 주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난 도자기 굽는 법을 배우고 싶는데, 도자기 배울 몇 사람을 위해 학교에 가마터가 생긴다. 난 컴퓨터를 배우고 싶는데, 학교 컴퓨터는 286 이다.

국가에서 바꾸어 주겠다고 했지만, 이

학교 설치하고 저 학교 설치하고 그러다 보니, 2년은 더 있어야 컴퓨터가 들어 올 것 같다.

이렇게 되면, 교육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이상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럴 수는 없겠지? 또, 학교라는 폐쇄된 공간은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단아버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학교라는 곳은 교육을 할 때의 하나의 구심점은 될 수 있을 것 같다.

싸고 값진 '강의'를 들을 수도 있으며, 교실이라는 공간도 주어진다.

학교의 기능은 최소화하고, '학습자 주체' 교육을 위한 연결망을 만든다!

난 도자기 만들러 오늘 XX 도자기 마을에 갔다. 도자기 마을에서 도자기 배우러 온 친구들과 도자기를 만들었다. 가마터를 보고 직접 실습하면서 배우니 많은 것을 배운 것 같다. 참 좋은 하루였다.

미래 어떤 학생의 일기다.

이렇게 연결망이란, 벽이 없는 학교들(배울 기회가 있는 곳들) 연결하여, 교육을 '개방'해나가는 것이다.

자 정리!

행복을 만드는 교육은 '원하는 교육'을 받으며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줄 때 이루어 질 수 있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 !!

난 이 땅의 모든 학생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꿈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행복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미래의 교육

새천년이 150일 남았다. 코앞에 다가온 2000년 대에는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아주 다른 세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은 많다. 이미 그 조짐은 뚜렷하고 또 우리 스스로 그 앞날의 삶을 어느 정도 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가장 가까운 삶터는 어떤 새로운 모습일까 하는 구체적인 예감은 좀처럼 없다. 이를테면 가족, 교육과 같이 너무도 가깝고 늘 함께하는 삶터의 모습이 그렇다. 우리는 아무리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에 익숙해지고, 다채로워진 매체환경 속에 살아도, 정작 우리 곁에 있는 삶의 문화가 달라지는 데는 감이 뜨다. 하지만 세상이 바뀌면 이런 것들도 따라서 달라지게 마련이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다른 무엇보다도 깊숙한 부분까지 달라진다. 교육이 그렇다.

실제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매체환경의 변화는 바로 교육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이미 개발된 기술로만 봐도 지금, 여기 우리 학교교실에서 날마다 벌어지는 수업은 시대착오적이다. 선생은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고, 머리에 죽은 글자나 우겨넣은 수업은 굳이 교실에 모여서 할 필요가 없어진 때문이다. 가상현실형 화상교육 같은 것은 앞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된 미래인 것이다. 이쯤 되면 우리의 통신문화 뿐 아니라 삶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특히 학교가 그렇다. 그토록 우리 학부모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수업, 진도, 학습은 대체로 가상현실형 화상교육으로 가뭇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학교는 아이들이 함께 모여 사회성을 배우고, 서로 어울려 놀며 살아가는 곳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가 다녔던 학교, 지금 있는 학교가 천년만년 계속될 것처럼 생각한다. 그리고 학교 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앞으로도 늘 그럴 것처럼 착

각한다. 하지만 앞에 이야기 했듯이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라. 지금같은 엄청난 변화를 예감이 나 했겠는가? 이제 우리 아이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새로운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이 모두 바람직하고 또 환영할 만한 것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교육이, 아니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이러한 변화를 예감하고 준비하며 살고 있는나이다. 세상은 새부대에 담으라는 말씀은 괜한 것이 아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그에 걸맞는 새로운 삶, 새로운 사람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준비가 되어있질 않다.

이렇게 새로운 세상에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려 우리 아이들과 그들의 지금, 여기의 삶인 교육을 적어도 이러한 준비와 준비가 되도록 하려면 우리 스스로 달라져야 한다. 하다못해 우리가 흔히 쓰는 펜티엄급 컴퓨터는 지금부터 꼭 30년전 아폴로 우주선을 달에 쏘아올렸던 미국의항공우주국, 곧 NASA의 당시 컴퓨터 총용량과 맞먹는다고 한다.

이렇게 지금은 '내 책상 위에 나사(NASA)'의 시대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학생들이 참고서나 학습지 따위를 퍼놓은 책상에 코를 박고 줄도록 강요한다. 체질만의 의사소통 방식으로 우리로서는 해독하기도 어려운 코드로 만나고, '스타크'에 빠져있는 청소년들에게 손가락질만 한다. 부모세대와는 대화정도가 아니라 영혼과 감성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인종인 아이들에게 언제적 출세의 신화와 성공담으로 거품을 문다. 이렇게는 안된다.

미래는 이미 시작된지 오래다. 미래를 예감하고 예비할 뿐 아니라, 미래를 앞당겨 살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자기교육에 나서야 할 때다.



정유성(서강대 교수)

- 지금까지 글 써주신분
- ①연세대 조혜정 교수
- ②서강대 정유성 교수

학복회 임의

를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강원도 영월'로

다녀왔습니다. 힘든 일정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내린 소나비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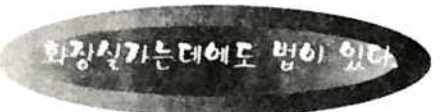
불구하고 열심히 참여해주었던 학복회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좀더 멋진 엔티를 준비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엔티 중 가장 기억나는 일은 무엇일까?

아마도 단하나의 화장실, 공동이동화장실이 아닌가 싶다.

이 화장실에 대한 어느 회원의 처절한 외침이다.



*화장실의 공기를 내뿜안에 넣을순없다! 숨참고 들어가!!

이짓하다가 숨막힐뻔 했음. 참다가 지치면 숨을 더 크게 들이쉬어..

더 악효과를 그뒤로 이짓 절대 안함.

*나방과의 한판 싸움 - 어두운 화장실 렌턴이 필요 하다.

달려드는 나방. 난 일을 끝내고 마리라는 굳은 다짐 속에 나방과

끝까지 싸워 이기고 만다. 내 승리다. ㅠ.

ㅠ

*날이면 갈수록 올라가는 높이(?) 건너기들(?)이 별로 안 쌓여 있을때 가서 다 행이지..

좀 더 늦었더라면.. 넘쳤을지도.. 다행다행 날이 갈때마다 높아지는 건너기들.-=

이 화장실에 대한 많은 회원들의 악몽.. 정말 엄청났다 ^^;

그리고, 더 여러 기억이 남는다. 물놀이라는 가, 샤워장(^^;), 2시간 행진 (산넘고 물건너 - 진짜 말그대로..), 여러 게임, 세미나(학교에 대한 진지한 토론) 등등 너무 좋았다. ^^

이제 엔티를 정리해보자.

하이텔 학복회 나누누리 학복회 회원간의 오랜만의 교류였다.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같이 놀며, 자며, 같이 댁고(^^;), 설거지도 함께 하고, 정말 서로의 모든 것을 본 기분이었다.

너무 좋았다.

학복회 자체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짚어내는 긴 회의도 역시 많은 것을 남겼다. 정말 좋았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시골 어느 공간 속으로 들어가 버린 한 시대 멋진 아이들!

그들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